

#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의 <14~15세기 왜구의 변질> 설에 관한 검토\*

한 윤 희\*\*

yuni613@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서론                   | 4. 홍리왜인·사송객인의 도항 증가 배경 |
| 2. 투화왜인의 증가와 조선의 경제적 부담 | 5. 사송객인의 실체            |
| 3. 홍리왜인의 증가와 조선의 왜인 통제  | 6. 결론                  |

Key word : 다나카 다케오(Tanaka Takeo), 나카무라 히데다카(Nakamura Hidetaka), 왜구 (Japanese Pirates), 홍리왜인(Japanese Trader), 투화왜인(Japanese who Surrendered)

## 1. 서론

전근대 한일관계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1902-1984)는 “피로인(被擄人)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해구(海寇)는 해상(海商)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소위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으로의 전환>설을 주장하였으며<sup>1)</sup> 이는 일본학계와 한국학계에서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4815)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증세 한일관계사

1) 中村榮孝(1934) 『室町時代の日鮮關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pp.12-13; 同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pp.149-150; 同(1966) 『日本と朝鮮』 至文堂 pp.77-79

2) 나카무라는 왜구가 15세기에 들어와 ‘평화적 통호자(平和な通好者)’ 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후에 학계에서 ‘평화적 통교자(通交者)’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다.

주장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사 학계를 이끌어나간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1923-2009)의 소위 <왜구 변질>설로 심화·확대되었다. 즉 14-15세기의 왜구(=전기왜구)가 다음의 세 가지로 전환(轉換)·분해(分解)·변질(變質)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투화왜(投化倭), 둘째, 흥리왜인(興利倭人) 내지는 사송객인(使送客人), 셋째, 그대로의 해적이 그것이다.<sup>3)</sup>

한편 전근대 한일관계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황국사관론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그가 연구한 전근대 한일관계사 관련 연구 중 왜구에 관한 연구들을 다시 재고해야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은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sup>5)</sup> 따라서 나카무라의 주장을 계승한 다나카의 <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시리즈에서도 이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학계와 일본학계에서 14·15세기의 왜구가 상인(=평화적 통교자)으로 변질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윤희(2021)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교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188-193을 참조

- 3) 田中健夫(1959) 『第一 倭寇の変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4) 이영(2014a)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3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同(2014b)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연구』127 동양사학회; 同(2014c)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40 한국중세사학회; 同(2015)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56 역사교육학회(이 논문들은 후에 이영(2015)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에 실림); 한윤희(2021); 송중호(2022)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1396년(태조 5년) 나가는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기·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0 한일관계사학회; 윤기원(2022) 『中村榮孝의 『室町時代の日鮮關係』에 대한 비판적 고찰-고려말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9월 등
- 5) 나카무라의 주장에 대해 한윤희는 관련 사료를 통해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① 침구 지역을 이동시킨 것이며, ② 중국에서는 ‘왜구’, 조선에서는 ‘해상’과 같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사료를 검토한 결과, 조선과 중국에서는 왜구의 존재를 항상 경계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정왜(征倭)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인식은 사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한윤희(2021) pp.207-217).

구 변질>설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6)</sup>

이와 같이 본고는 다나카가 주장하는 왜구의 세 가지 변질설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그의 대부분의 주장은 나카무라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조선의 왜구 회유책에 관한 나카무라 히데다카와 다나카 다케오의 견해

no.	내용	나카무라 히데다카	다나카 다케오
①	회유책의 결과(=왜인 통제책의 이유)	·회유책의 성공과 함께 조선의 부담은 매우 무거워져 갔다. 제3대 태종 초기, 일본으로부터의 교통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sup>7)</sup>	·이처럼 항왜는 매년 그 숫자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조선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sup>8)</sup> ·흥리왜선이 무제한으로 각포에 산박하여... <sup>9)</sup> ·행장의 지급은 이 무제한의 흥리왜인 내지 판매왜인으로 불린 일본인에게 통제를 가하려고 한 것이고 <sup>10)</sup>
②	왜인들의 도항 증가의 원인	·이리하여 조선에는 약재나 기호품·사치품의 종류가 마침내 보급되고 용도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목면·미곡·약재 등 일상의 필수 물자를 얻을 수 있던 것으로, 상호의 요구는 매년 커지게 되었다. <sup>11)</sup>	·(흥리선의 빈번한 도박(到泊)은) 조선 측이 흥리선의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상사 도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sup>12)</sup> ·남해 물자는 조선에게 있어서도 또한 필수 불가결한...(중략) 약재로서의 조합유, 기호품으로서의 호초 등도 당시 증대하고 있던 조선 귀족의 사치 생활에 적합하여 광범위하게 수요되고 있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up>13)</sup>

6) 다나카 다케오가 주장한 대표적인 학설 중 <왜구=일본인과 고려인·조선인 연합>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비판이 있었으며, 또한 왜구를 ‘전기왜구(=14-15세기의 왜구)’와 ‘후기왜구(=16세기의 왜구)’로 성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는 고려 말·조선 초 왜구 발생의 목적 및 주체에 대해서도 <삼도(三島)해민(海民)>설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수열(2019)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2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를 참조. 아울러 일본학계에서 주장하는 왜구의 실체 및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이영(2014b) 참조

7) 中村榮孝(1934) p.19; 同(1965) p.165; 同(1966) p.104

8) 田中健夫(1959) p.14. 이와 비슷한 내용이 同(1982)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p.52

9) 田中健夫(1959) p.28

10) 田中健夫(1959) p.29

11) 中村榮孝(1965) p.191

12) 田中健夫(1959) p.30

③	조선으로 도향한 왜인들의 실체	이들 중 대다수는 처음에는 왜구로서 조선을 약탈했던 것이다. <sup>14)</sup>	개인·사송객인은...(중략) 실제의 구성 요원은 왜구의 일부가 그대로 이행(移行)한 무역 상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sup>15)</sup>
④	조선 전기 왜구의 발생 원인	왜구도 또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발호하고 있던 것이 틀림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통호자가 되고, 교역자가 된 것은 물론이다. <sup>16)</sup>	주위의 정세(빈번한 남해무역, 조선의 회유책, 일본 서국 제 호족의 무역장려책, 조선·일본의 외국물자 수요의 요망) <sup>17)</sup>

위 <표>의 두 사람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회유책의 결과(=왜인 통제책의 이유)>에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항왜의 증가=조선의 회유책의 성공’은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sup>18)</sup> 이로 인해 조선이 그들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② 왜인들의 도향 증가의 원인>으로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가져오는 약재·기호품 등의 물건들이 조선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③ 조선으로 도향한 왜인들의 실체>에 대해 다니카는 왜구의 일부가 그대로 이행한 무역상인으로, 나카무라는 대다수는 왜구였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두 사람 모두 왜구가 상인으로 변모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④ 조선 전기 왜구의 발생 원인>을 보면 다니카는 여러 가지를 서술하고

13) 田中健夫(1959) p.31

14) 中村榮孝(1934) p.19; 同(1965) p.165; 同(1966) p.103

15) 田中健夫(1959) p.24

16) 中村榮孝(1934) p.19; 同(1965) pp.164~165; 同(1966) p.103

17) 정확하게는 “무로마치 초기의 무역상인은 왜구 진출과 함께 활동을 개시하고, 그 배후에 빈번한 남해무역과의 연계를 가지며, 조선의 회유책과 우리나라 서국 제 호족의 무역장려책의 미묘한 상대관계를 만나고, 조선·우리나라의 외국 물자 수요의 요망에 응하면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주위의 정세에 따라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상인으로서, 사인(使人)으로서, 때로는 해적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던 것도 또한 저절로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田中健夫(1959) p.32).

18) 나카무라가 말하고 있는 ‘조선 정부의 부담’이란 곧 ‘조선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리키는 것이다.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실려 있는 몇몇 논문의 서두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五 室町時代の日鮮關係」 p.175, 「十一 日鮮交通の統制と書契および文引」 p.443, 「十二 浦所の制限と倭館の設置」 p.491, 「十三 倭人上京道路」 p.499, 「十四 朝鮮初期の受圖書倭人」 p.517 등

있지만 주된 내용은 결국 ‘경제적 요인’을 가리키고 있다. 나카무라의 의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는데 결국 두 사람은 조선 전기 왜구 발호의 원인을 왜구의 내부적인(정치·군사·경제 등의)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 즉 오로지 ‘무역적인 측면’에서만 찾고 있다.

위와 같이 다나카의 주장은 나카무라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한 것이었다.<sup>19)</sup> 과연 다나카의 주장이 맞는지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료의 적합성·서술의 전개 과정, 논리적인 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①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두 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2장에서는 ①의 ‘항왜의 증가와 조선의 경제적 부담’을, 3장에서는 ①의 ‘흥리왜의 증가와 조선의 왜인 통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②의 ‘왜인들의 도항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5장에서는 ③의 ‘사송객인의 실체’에 대해 검토한다. 이 모든 주장들의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다나카가 말하는 조선 전기 왜구 발생의 원인을 조선의 회유책으로 볼 수 있는지 규명해 본다.

19) 본 고에서 다루는 다나카의 주장은 1959년에 출간된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의 『第一 倭寇の変質と日鮮貿易の展開』에 실린 것이다. 당시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다나카의 서적이 출간되자 『사학잡지(史學雜誌)』의 「비평과 소개(批評と紹介)」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필자는 다이쇼(大正) 연말 이래로 오랫동안 일선(日鮮)관계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패전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조선에서 돌아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저자(필자 즉, 다나카 다케오)를 알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필자의 오랜 원고와 관련 있는 논문(본 책의 第一·第四)이 발표되어 지기(知己)를 얻은 기쁨에 강한 향수를 느껴 사료를 다시 수집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매년 발표되는 저자의 연구 성과에 격려받아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 책의 간행에는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다. 동시에 본 책에 의해 대외교섭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마지않는다.”(中村榮孝(1960) 『田中健夫著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大人文学研究叢書, 『史學雜誌』69-7 p.98(914))(※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나카무라는 다나카의 원고 중 『第一 倭寇の変質と日鮮貿易の展開』가 자신의 원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기(知己)를 얻은 기쁨을 느껴 포기했던 자신의 연구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본문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나카의 글은 자신의 견해들과 거의 같은 것이었기에 지기를 얻었다고까지 표현한 것이었다. 한편 다나카 역시 나카무라의 연구서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조관계사(日朝關係史)의 개설(概説)”, “오늘날의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田中健夫(2003) 『対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p.135). 이로부터 나카무라·다나카 두 연구자 모두 서로의 연구 성과에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연구자의 주장이 유사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본고는 다나카의 위와 같은 주장을 소위 <14~15세기 왜구의 변질>설이라 명명하고, 다나카의 첫 연구서이자 후에 그의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59)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0)</sup> 또한 다나카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하나하나 소논문의 주제로 다뤄야 할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주제들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 14~15세기의 모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나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관련 내용의 사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투화왜인의 증가와 조선의 경제적 부담

본 장에서는 다나카의 주장 중 ‘조선의 회유책으로 투화왜인이 증가하자 조선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라는 견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나카의 말대로 “큰 경제적인 부담”<sup>21)</sup>이 되고, “조선의 경제 사정을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sup>22)</sup> 것이 맞는지 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다나카는 그 주장의 근거로 ㉠ 태조 6년 4월 정미조<sup>23)</sup>·㉡ 태종 9년 11월 임오조<sup>24)</sup>·㉢ 태종 18년 3월 경오조<sup>25)</sup>의 사료를 예로 들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20)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출간 이후 다나카는 여러 책을 저술하고 있는데, 그중 1982년에 출간된 『倭寇 海の歴史』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교양서적과 같은 성격으로, 2012년에는 고단샤 학술문고(講談社學術文庫)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책의 내용 중 1장 「十四~十五世紀の倭寇の発生と活動」에서는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요약·정리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사전들(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93) 『國史大辭典』14 吉川弘文館 p.887 및 下中弘編(1994) 『日本史大事典』6 平凡社 p.1313 등)에서 ‘倭寇’ 항목을 보면 참고 자료로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와 『倭寇 海の歴史』가 제시되고 있을 만큼, 일본에서는 다나카 다케오의 주된 논리를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에서 찾고 있다.

21) 구체적으로 다나카는 “이처럼 항왜는 매년 그 숫자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조선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このように降倭は連年その数を増したのであるが、これが李朝の大きな経済的な負担とな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고 하였다(田中健夫(1959) p.14).

22) 田中健夫(1959) p.16

23)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정미조

24)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임오조

㉞의 경우는 간관(諫官)이 시무책(時務策) 등 10개조를 건의한 내용이다. 이 10개조 중 항왜의 증가로 인해 조선의 경제가 부담되었다는 다나카의 주장과 관련된 것은 다음의 한 조이다.

<사료1>

1. 각도의 군사가 역사에 체번하고 방수(防戍)에 교대하는 것이 1년에 대개 한 번이니 참으로 편한 것 같으나, 그러나 ㉠ 먼 지방의 사람은 상번(上番)하여 숙위(宿衛)하고 하번(下番)하면 어모(禦侮)하여 거의 편할 날이 없습니다. ㉡ 저번에 항복한 왜구로 인하여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 노고가 지극합니다. ㉢ 지금은 숙위하는 책임이 다행히 갑사에게 있으니 각도의 군사는 원컨대, 숙위를 정지하고 몸을 쉬고 말을 길러 관찰사로 하여금 봄 가을 강무(講武)에 강한 것을 고열(考閱)하게 하여, 만일 변경(邊警)이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모이게 함이 참으로 편익할 것입니다.<sup>25)</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다나카는 <사료1>의 밑줄 친 ㉡의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27)</sup> 그런데 항복한 왜구로 인해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배를 타고 있어 노고가 지극한 군사는 어디의 군사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에도 “먼 지방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는 경상도의 군사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건의가 있기 전해인 태조 5년(1396) 겨울에 연이어 항복한 임온(林溫)·구육(庾六) 등의 왜인들<sup>28)</sup>로 인해 경상도 지역의 군사들이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항왜로 인해 생업을 돌보지 못하는 군사는 조선의 모든 군사도 아니고, 경상도 한 지역의 군사들이 그러했던 것으로, 경상도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의 군사들이 반년 정도 생업을 돌보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조선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을까?

또한 간관이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 이유는 ‘먼 지역의 군사는 1년 중 반은

25)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경오조

26) 위의 주(23) 사료

27) 田中健夫(1959) pp.14-15

28)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계사조·『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을사조·『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계미조 등

서울에 상경하여 숙위(宿衛)하고, 반은 지방에 내려가 방어(禦侮)에 힘쓰느라 쉴 틈이 없는데(㉠), 게다가 지난해 항복하는 왜구들이 잇따라 경상도의 군사들은 생업도 돌보지 못하고 노고가 지극하다(㉡). 마침 갑사가 숙위하고 있으니 각도의 군사는 숙위를 그만두고 쉬고 있다가 만약 변경에 일이 생기면 그때 모이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군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의한 것이었다. 사료의 어디에도 ‘항왜의 증가와 조선의 경제적 부담’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다나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와 ㉡의 경우는 중국과 관계된 것으로, 조선은 항상 북방인 명·여진의 정세<sup>29)</sup>와 왜구로 인한 중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마찰을 염려하였다.<sup>30)</sup> 그러나 다나카는 단순히 항왜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사료의 일부만을 취해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나카가 제시한 사료는 아래와 같다.

#### <사료2>

1. 전(傳)에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국가가 ㉠ 근년 이래로 전라도의 군자(軍資)는 제주를 진제(賑濟)하고 경상도의 군자는 왜노(倭奴)에게 넉넉히 주어서, 두 도(道)의 창고가 거의 비고 탕갈(蕩竭)되었으니 심히 염려됩니다. 오직 저축이 있는 곳은 서북(西北) 한 도(道)뿐인데, 서북의 지경은 중국과 연결하여 얼음이 어는 때를 당하면 채찍질 한 번에 건널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만일 하루아침의 변(變)이 있어 홍건적(紅巾賊)이 왔던 때처럼 먼저 이 도(道)를 점거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중략)

1.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문(文)을 높이고 무(武)를 숭상하여, 선비는 힘쓰고 군사는 강하여 그 위엄이 인적(隣敵)에게 가해져서, 유구(琉球)·섬라(暹羅)·왜국(倭國)의 사람이 내부(來附)하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천재(千載)에 드문 일입니다.

29) 본 고에서 언급하는 태조-태종대의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김경록(2018) 「조선초기 국제 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pp.89-97을 참조

30)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기해조·『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을미조·『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무오조·『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갑자조 등. 특히 태종대에는 명에서 정왜론(征倭論)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민덕기(2007) 『제3장明代 초기 일본정벌론과 조선의 대응』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pp.103-130을 참조



그러나 왜노란 것은 성품이 사납고 심정이 악하여 대대로 도둑질을 행하니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㉔ 지금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주군(州郡)에 섞여 살며 관직을 받아서 대궐 뜰에 숙위(宿衛)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심히 온당치 못합니다. 진나라 초년에 여러 오랑캐(胡)가 중국에 섞여 살고 있었는데, 곽흠(郭欽)과 강통(江統)이 모두 무제(武帝)에게 ‘변방 밖으로 몰아내어 난(亂)의 계제(階梯)를 끊으라.’고 권하였으나 무제가 듣지 않았다가, 20여 년 뒤에 이(伊)·락(洛)의 사이가 마침내 오랑캐 지역이 되었고, 당나라 초년에 돌궐(突厥)이 그 부락(部落)을 잃고 모두 장안(長安)에 이르니, 위징(魏徵)이 태종(太宗)에게 권하기를, ‘차마 다 죽일 수는 없으니 마땅히 고토(故土)로 돌려보내고, 중국에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하였으나, 태종이 듣지 않았다가 드디어 당나라 왕실로 하여금 대대로 용적(戎狄)의 난(亂)이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지난 일의 밝은 거울입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㉕ 혹시 내란이 있으면 이들 무리가 마침내 외환(外患)이 될까 염려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금(古今)을 잠참하여 재탁(裁度)해 시행하소서.“하니...(이하 생략)<sup>31)</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사료3>

㉔ 대언(代言)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투화(投化)한 왜인 등이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도 오히려 나라에 의뢰하여 자생(資生)하니, 그 지응(支應)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다시 양식을 주지 마소서.”하니, 하교(下教)하였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산(家産)을 익히지 않았을 때는 양식을 주어서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일을 익혀서 이미 그 생활을 꾸리면, 전지를 경작하여 먹는 것이 가(可)하다. 식량을 우리나라에 위탁하여서 항례(恒例)를 삼는다면 끝이 없는 욕심을 어느 때에 그만두겠느냐? ㉕ 근자에 평도전(平道全)이 동생 피랑(皮郞)에게 글을 주었는데, 적인(賊人) 등이 배 1백 50척을 만들어 중국을 약탈하고자 한다니, 그들이 왕래할 때에 변방의 환(患)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평도전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권도(權道)의 뜻이다. 적(賊)들이 많이 불의(不義)한 짓을 함부로 행하니, 마땅히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만약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승냥이와 이리 같은 포악함을 어느 때에 그만두겠느냐? ㉖ 만약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교통(交通)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중국의 환(患)을 구하지 않는다면 비단 사대(事大)의

31) 위의 주(24) 사료

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말에는 반드시 복심지질(腹心之疾)이 있을 것이니, 내가 이 때문에 염려하기를 그만두지 못한다.”<sup>32)</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사료2>는 태종 9년 11월 임오일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시무책의 내용 중 일부이고, <사료3>은 태종 18년 3월 경오일에 태종이 정사를 보던 중 대언(代言) 하연(河演)이 발언한 내용과 그에 대한 태종의 답이다.

<사료2>와 <사료3>에서 다나가가 제시한 근거는 바로 ㉠과 ㉡의 밑줄 친 부분이다. (투화)왜인으로 인해 “경상도의 창고가 거의 비고 탕갈”(㉠)되었으며, 그들이 “투항하여 조선에 사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도 우리 나라에 의지하여 자생하니 지응(支應)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내용만 보면 실제로 투화왜인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항왜가 조선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경제 사정을 압박’해서 나온 발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다.

태종 9년(1409) 8월 명 성조(成祖)가 기국공(沂國公) 구승(丘勝)으로 하여금 몽고의 타타르(韃靼)부(部)를 치기 위해 북정(北征)에 나서게 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다.<sup>33)</sup> 전쟁의 여파를 우려한 조선은 동북면과 서북면에 불우지변(不虞之變)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34)</sup> 그런데 북정에 나섰던 구승은 결국 대패하였고, 이에 명 성조는 친정의 계획을 세우고<sup>35)</sup> 황엄(黃儼)을 조선에 보내 전쟁에 쓸 말을 교역하도록 하였다.<sup>36)</sup>

<사료2>의 시무책이 올라오기 8일 전인 태종 9년 11월 갑술일, 타타르가 북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선 조정에 전해졌다.<sup>37)</sup> 또 중국 전쟁의 여파로 만산군(漫散軍)이 조선의 서북면에 지속적으로 오자 조선은 이에 대한

32) 위의 주(25) 사료

33)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임술조

34) 위의 주(33) 사료

35) 박원호(2002) 『III 明初 朝鮮과의 女眞問題, 永樂年間 明과 朝鮮간의 女眞問題,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pp.183-184

36)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기미조·경신조

37)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갑술조

대책을 강구하는<sup>38)</sup> 한편 군량 비축에도 고심하였다.<sup>39)</sup> 즉 <사료2>의 ㉔은 항왜로 인해 조선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중국의 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가 조선에까지 끼칠 것을 우려한 사간원이 태종에게 군량을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자 건의한 내용 중 일부였던 것이다.

게다가 사간원은 항왜를 비롯한 왜인들이 ㉕과 같이 조선의 주군(州郡)은 물론 궁궐에까지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㉖와 같이 만약에 내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외환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염려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조선 정부는 중국의 전쟁으로 인한 군량 확보가 시급한 비상상황에 항왜에게 양식을 줌으로써 군량이 낭비된다 여겼던 것이고, 또 항왜를 비롯한 왜인들의 존재 자체가 조선에게 있어서는 내란이 일어날 경우 외환이 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어서 <사료3>을 검토해보자. 대언 하연이 ㉗과 같이 항왜를 지용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이들에게 양식을 주지 말 것을 태종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왜구가 배 150척을 만들어 중국을 침구한다는 정보를 들은 태종은 평도전(平道全)과 같은 항왜가 있었기에 이런 정보를 얻은 것이고(㉘)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향하는 왜구를 미리 조선에서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통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㉙). 즉 태종은 항왜를 지용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이 왜구들을 항왜로 만드는 비용보다는 미리 항왜로 만들지 못한 왜구들이 중국에 침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위구하고 있던 것이다. 이 사료의 내용도 역시 항왜로 인한 조선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라기보다는 왜구 침구를 조선에서 미리 막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상의 검토로 보았을 때 다나카가 ‘항왜로 인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사료들은 국방상의 내용이 주된 것이었으며, 이 사료들을 통해 항왜로 인해 조선이 “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조선의 경제 사정을 압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다나카는

38)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무인조

39)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을축조·『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임오조·『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정해조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 선택에 있어 사료의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주장에 맞는 부분만을 취해 근거로 제시하거나 과장되게 해석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 3. 홍리왜인의 증가와 조선의 왜인 통제

앞 장에서는 다나카의 주장 중 ‘투화왜인의 증가와 조선의 경제적 부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홍리왜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조선의 왜인 통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나카는 “홍리왜선이 무제한으로 각포에 산박(散泊)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려, 경상 좌우도 도만호가 방어하는 곳에만 도박을 허가하고 행장(行狀)을 주어 통제하여, 그 사위(詐僞)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0)</sup> 그가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사료는 태종 7년 7월 무인조의 사료로, 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이 각포(各浦)의 사의(事宜)를 상서한 내용 중 일부다. 관련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4>

1. ㉠ 홍리왜선이 각 포구에 흠어져 정박하여 병선의 허실(虛實)을 엿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이전에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의정부에 보고하여 좌우도 도만호(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섬의 왜선에게 그 까닭을 두루 알리지 못하여 전과 같이 각포(各浦)에 흠어져 정박합니다. 빌건대, 각 섬의 거수(渠首)에게 두루 알리고, 행장(行狀)을 만들어 발급하여 도만호(都萬戶)가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하여, ㉡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막아 일체로써 다스리게 하소서.<sup>41)</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나카는 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이 홍리왜선이 “무제한으로(無制限に)” 포구에 산박하는 것을 우려하여 행장 발급을 건의한

40) 田中健夫(1959) p.28

41)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무인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료4>의 어디에도 홍리왜선이 “무제한”으로 왔다는 표현은 없다. 또 홍리왜선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왔는지, 수치 상에 대한 표현도 없다. 행장이 발급된 이유는 홍리왜선이 수(數)적으로 많이, 무제한으로 와서가 아니고, <사료4>의 ㉠에 나와 있듯이 홍리왜선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박하여 “병선의 허실(虛實)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국방의 기밀이라 할 수 있는 병선의 허실을 왜선들이 엿보기 때문에 행장을 발급하여 도만호가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해, ㉡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막아 일체로 다스리자.”는 것이었다.

이어서 다나카는 다음의 두 사료를 제시하였다.

<사료5>

1. 향화(向化)를 자원하여 해변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왜인과 홍리 왜인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언설(言說)이 난잡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빌건대 육지의 먼 곳에 옮겨 두도록 하소서.<sup>42)</sup>

<사료6>

홍리 왜선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sup>43)</sup> (※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두 사료는 <사료4>와 같이 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이 상서한 내용의 일부들이다. <사료5>는 향왜와 홍리왜인이 서로 왕래하여 일으키는 문제로 향왜들을 육지 먼 곳에 옮기도록 하자는 건의이다. <사료6>은 홍리왜선과 왜객의 사선이 항상 와서 정박하기 때문에 도만호가 잠시도 (포구를) 떠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나카는 위의 두 사료를 제시하고 “빈번하게 도항하여 각 포에 산박한 이 홍리왜인이 향왜나 사송객인과 연락을 취해 연해(沿海) 관현(官憲)의 공포의 적이 되고 있던 상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4)</sup> 여기에서도 다나카는 홍리왜인이 “빈번하게(頻繁に)” 도항한

42) 위의 주(41) 사료

43) 위의 주(41) 사료

44) 田中健夫(1959) p.28

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사료5>와 <사료6>에서 홍리왜선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그 빈도나 횡수에 대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다. 다니가는 <사료6>의 밑줄 친 “항상”의 부분을 “빈번하게”로 표현한 것일까? <사료6>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사료7>

1. 의정부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행이(行移)하여,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로 하여금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전라도 지경 안부도(安釜島) 등처에 방어토록 하였는데, 생각건대, 내이포(乃而浦)는 방어의 요해지(要害地)이고, 또 홍리 왜선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안부도(安釜島)의 조전(助戰)하는 병선은 본도(本道) 군관(軍官) 가운데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감전관(監戰官)으로 정하고, 병마사(兵馬使)·진무(鎭撫)로 하여금 영솔하여 방어하게 하소서.”<sup>45)</sup>

<사료7>의 내용을 보면 강사덕은 조정의 지시대로 우도 도만호가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안부도(安釜島) 등처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이포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또 왜선이 항상 와서 정박하기 때문에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강사덕은 안부도는 병마사·진무가 영솔하도록 하고, 우도 도만호는 요충지이자 왜선이 항상 정박하는 내이포를 방어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 여겨 위와 같이 조정에 건의한 것이고, 조정은 이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료4>와 같이 <사료7>의 사료에서도 홍리왜선이나 왜객의 사선이 얼마만큼 조선에 왔는지 수치상으로 표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또한 우도 도만호가 내이포를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내이포가 군사적 요충지이자, 왜선이 항상 와서 정박하는, 즉 국방상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홍리왜선이 조선에 왔던 것일까? 다니가가 말한 대로 “무제한”으로 “빈번하게”, 요컨대 수(數)적으로 많이 왔기에 조선이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일까?

45) 위의 주(41) 사료

당시에 홍리왜선이 조선에 얼마나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강사덕의 상서가 채택된 날과 같은 날인 태종 7년 7월 무인조에 의정부가 태종에게 올린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료8>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㉔ 홍리 왜선이 연속하여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는데, 일시에 혹은 수십 척이 됩니다. ㉕ 무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유련(留連)하게 하고, 혹은 흠어져 민호(民戶)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금후로는 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왜선에겐 연해(沿海)의 각 고을 창고에서 목은 쌀·콩으로 시기(時價)에 따라 무역하여, 그 왜선으로 하여금 즉시 본도(本島)에 돌아가게 한 뒤에, 무역한 어염(魚鹽)을 관선(官船)에 싣고 낙동강을 거쳐 상도(上道)에 정박하여, 각 고을의 자원하는 인민(人民)에게 쌀과 베(布)를 가리지 말고 화매(和賣)하여 창고에 넣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sup>46)</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사료8>의 ㉔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태종 7년 당시 홍리왜선이 조선에 도항하는 빈도수와 규모를 알 수 있다. 홍리왜선은 “연속해서” 나오며, 그 규모는 “일시에 혹은 수십 척”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의 밑줄 친 부분 ㉕의 내용이다. (홍리 왜인이) 무역을 하려고 하지만, 무역을 하는 조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본도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며, 혹은 흠어져 민가에 들어가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료4>~<사료8>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 정부는 홍리왜선이 “연속해서”, “수십 척”이 도항해 오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홍리왜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한 민간의 소요 및 국방상의 기밀 유출 우려로 인해 정박지를 정하는 등의 통제를 가하려고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나카는 바로 뒤에 <사료8>의 사료를 들고 있지만, 사료 제시 없이 “무제한”, “빈번하게”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46) 위의 주(41) 사료

다나카는 “이리하여 행장의 지급은 이 무제한의 흥리왜인 내지 판매왜인이 라 불린 일본인에게 통제를 가하려고 한 것이고...”<sup>47)</sup>라며 흥리왜인과 관련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 부분에서도 “무제한의 흥리왜인(無制限の興利倭人)”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흥리왜인이 무제한으로 조선에 와서 행장이 발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8)</sup> 다나카 본인이 제시한 사료에 분명히 흥리왜선이 조선의 국방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행장이 발급되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나카는 왜 흥리왜선이 “무제한”으로 왔다고 몇 번이나 무리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항왜의 증가는 조선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흥리왜선이 수적으로 무제한으로 왔기 때문에 조선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결국 그들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나카는 항왜와 흥리왜인의 무제한 도항과 조선의 경제적 부담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다나카는 세종대에 가해진 조선 측의 무역통제책의 원인 중 하나로 ‘무역에 의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의 증대’를 꼽고 있다. 또 “왜구의 회유책으로 이용한 무역의 장려는 되려 조선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대해 갔다”<sup>49)</sup>고 말하고 있다. 다나카가 이렇게 조선의 회유책의 결과로 인해 조선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조선 전기 왜구 발생의 원인을 조선의 회유책(즉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즉 다나카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선이 왜구 침구를 막기 위해 그들에게 직책을 주고 땅을 주고 무역을 하게 해주는 등 회유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그러한 정책 때문에 그들이 무제한으로 와서 결국 조선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통제를 가했지만 왜구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고, 조선의 회유책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이 항왜·흥리왜·해적이라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해·변질되었다는

47) 田中健夫(1959) p.29

48) 다나카는 이후에 출간한 다른 연구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 田中健夫(1962)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pp.34-35 및 田中健夫(1982) p.54

49) 田中健夫(1959) p.84. 다나카가 제시한 조선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료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한다.



것이다. 다나카의 이러한 논리는 조선 전기 왜구 발생 요인이 일본 국내의 정치와는 상관없는, 오로지 조선의 정책에 좌우된다는 것이며, 결국 이는 고려 말 왜구 발생의 요인을 토지제도의 문란 등과 같은 고려 정부의 무능함에서 찾는 것<sup>50)</sup>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sup>51)</sup>

#### 4. 홍리왜인·사송객인의 도항 증가 배경

이번 장에서는 다나카가 홍리왜인·사송객인의 도항 증가의 배경으로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본다. 우선 다나카는 “조선 측이 홍리선의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홍리선이 상시 도박(到泊)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sup>52)</sup>고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료9>

전라도 해도 찰방(海道察訪) 한웅(韓雍)이 각포(各浦)의 사의(事宜)를 올려 아뢰기를,

“각포의 만호·천호·영선 두목(領船頭目)이 해상의 방어를 여사(餘事)로 여기고, 군기감(軍器監)에 바치는 관갑피(貫甲皮)와 내상(內廂)에서 월과(月課)하는 관갑피를 판비(瓣備)한다 칭(稱)하고 영선군(領船軍)을 거느리고 항상 사냥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일 흑시 적(賊)을 만나게 되면 패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내상의 월과와 군기감에 바치는 관갑피를 일체 모두 면제하여 오로지 방어에 전력하게 하소서.

1. 해변의 봉줄은 왜적의 왕래를 정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랑(虎狼)과 함께 처(處)하여 사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생하며 입역(立役)하는데, ㉞ 내상 절제사(內廂節制使)가 구멍이 없는 큰 녹비(鹿皮)와 천아(天鵝)의 진우(眞羽)를 책납(責

50) 田中健夫(1962) pp.24-29

51) 고려 말 왜구의 실체나 발생 배경을 설명할 때 고려 사회의 피폐함과 질서의 문란함으로 전가하는 것, 일본 국내의 군사 정치 정세와는 무관하고 오직 무역이나 경제적인 문제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서술의 특징이며, 다나카 다케오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고려 말 왜구의 실체와 관련하여 일본의 남조 수군과의 관련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2014a) pp.200-208 및 이영(2014b) pp.50-58 참조.

52) 田中健夫(1959) p.30

納)하게 하여 해마다 상례(常例)를 삼으니, ㉠ 배(倍)나 되는 값으로 이를 무역하여 큰 폐단이 됩니다. 내상에서 연례로 거두는 큰 녹비와 천아의 진우를 모두 면제(蠲免) 하소서.”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군기감에 바치는 관갑피 이외의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그대로 따랐다.<sup>53)</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사료는 태종 8년(1408) 5월 기미조의 사료로, 전라도 해도 찰방 한옹(韓雍)이 각포의 만호·천호 등이 왜적의 방어를 신경 쓰지 않고 군기감(軍器監)과 내상(內廂)에 바칠 관갑피(貫甲皮)를 준비하기 위해 사냥만 일삼고 있기에 내상과 군기감에 바치는 관갑피를 모두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니카는 이 사료와 태종 17년 7월 신유조의 “제주의 각사(各司) 노비와 군정(軍丁) 등이 홍리선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육지로 나오니...(생략)”<sup>54)</sup>라는 사료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처럼 ㉠ 홍리왜인이 관현과 결탁하고, 또한 ㉡ 군정·노비 등과 결탁한 것은 ㉢ 홍리선의 빈번한 도박(到泊)을 말해준과 동시에, ㉣ 조선 측이 홍리선의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상시 도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상상시키게 하는 것이 아닐까?”<sup>55)</sup>

다니카는 ㉠홍리왜인이 관현과 결탁한 사료와 ㉡군정·노비 등과 결탁한 사료로, ‘㉢홍리선이 빈번하게 조선에 도박했고, ㉣조선 측이 홍리선의 물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과연 ㉠·㉡ 두 사료로 ㉢·㉣와 같이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밑줄 친 ㉡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의 경우, 제주의 각사 노비와 군정 등이 홍리선을 타고 육지로 도망왔다는 내용을 가지고 홍리왜인이 군정·노비 등과 결탁했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홍리선이 빈번하게 도박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어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9>를 살펴보자. 다니카가 말하는 ‘홍리

53)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기미조

54)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신유조

55) 田中健夫(1959) p.30

왜인과 결탁한 관헌'이란 바로 <사료9>의 ㉞ '내상 절제사(內廂 節制使)'를 말하는 것 같다. 다나카의 주장과 ㉞·㉜의 밑줄 친 부분을 서로 대비시켜보면 '내상 절제사가 홍리왜인과 결탁하여 구멍이 없는 큰 녹비(鹿皮<sup>56</sup>)와 천아(天鵝)의 진우(眞羽<sup>57</sup>)를 배나 되는 값으로 무역했다.'라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홍리왜인'이라는 부분이다. <사료9>의 어느 내용에도 내상 절제사가 왜인이나 홍리왜인을 상대로 무역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아마도 다나카는 다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처럼 추정한 것 같다. 즉 사료 자체가 전라도 지역의 해방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전라도 지역이 왜적을 방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왜적이거나 홍리왜인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점, 또 그 지역의 절제사가 녹비 등을 사사로이 무역한다는 점에서 '내상 절제사(=관헌)가 홍리왜인과 결탁했다'고 간주한 것 같다.

다나카의 주장이 혹여 사실이라면 조선의 절제사로부터 몰래 매매할 정도로 당시 녹비나 천아의 진우는 왜인에게 매우 중요했던 물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인이 이 물품들을 조선 측에 요구했거나 조선이 왜인에게 회답품 등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료인 『태종실록』을 찾아보면 왜인이 이 물품들을 조선에 요구하거나, 조선이 이들에게 주었다는 사료는 필자가 관건하는 한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녹비와 관련된 사료들을 보면 녹비는 중국인이나 여진인이 조선에 바치거나<sup>58</sup>) 조선이 중국 사신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sup>59</sup>) 또 후의 이야기이지만 세종대에는 중국이 조선에 주로 요구했던 물품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즉 <사료9>로는 '㉞홍리왜인이 관헌과 결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㉜홍리선이 빈번하게 도박했다'

56) 녹비(鹿皮)는 즉 사슴가죽으로 검(劍)과 같은 무기나 갑옷과 같은 방어구에 쓰인다(『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槍·長劍·劍 및 동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靑 등 참조).

57) 여기에서 천아(天鵝)란 백조, 즉 고니를 말하며, 진우(眞羽)란 화살의 깃으로 이용하던 독수리의 꼬리 깃으로, 털이 희고 깨끗한 것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527&cid=41826&categoryId=41826> 세종대왕 기념사업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58)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병오조·『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임술조

59)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병신조·『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을유조·『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병진조

60)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8월 신유조·『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7월 기사조 등

는 내용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로 보았을 때 ㉠·㉡ 두 가지 사료로는 ㉢·㉣와 같이 주장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다니카는 계속해서 “일본인이 가져온 남해(南海) 물자는 조선에게 있어서도 또한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었다.”<sup>61)</sup>고 말하며, ㉣와 거의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니카는 소목(蘇木), 심황(深黃), 소합유(蘇合油), 호초(胡椒)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 그가 거론한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10>

명하여 각도(各道)에서 진헌하는 기완(器玩)에 붉은색(絳色)을 금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목(蘇木)은 본국(本國)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기완(器玩)에 순색[質素]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sup>62)</sup>

<사료11>

예조에서 왜사(倭使)가 바치는 심황(深黃)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황색(黃色) 사용을 금했기 때문이다.<sup>63)</sup>

우선 <사료10>을 보면 일본의 남해물자인 소목(蘇木)이 당시 조선에 귀한 물품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사료만을 가지고 “조선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다.

또한 <사료11>의 경우 다니카는 “예조가 『勿納倭使所獻深黃』라고 청하고, 이후 황색 사용은 금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사료11>을 보면 이미 황색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사가 바치는 심황을 받지 말자고 청한 것이었다. 즉 다니카는 앞뒤의 사정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 사료를 통해서도 심황(深黃)이 “조선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고까지 여기기는 힘들 것 같다. 이어서 다니카는 소합유(蘇合油)와 호초(胡椒)의 예를

61) 田中健夫(1959) p.31

62)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임진조

63)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을사조

64) 田中健夫(1959) p.31

들었는데<sup>65)</sup> 관련 사료를 보면 이러한 물건들이 조선에서 귀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조선 귀족의 사치 생활에 적합하여 광범위하게 수요(需要)되고 있던 양상”<sup>66)</sup>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나카무라의 글에서도 보인다. 나카무라도 왜인들이 조선에 어떤 물자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는 “조선에는 약재나 기호품·사치품의 종류가 마침내 보급되고 용도도 점차 확대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목면·미곡·약재 등의 일상의 필수 물자를 얻을 수 있던 것으로, 상호의 요구는 매년 커져 갔다.”<sup>67)</sup>, “처음 교린(交隣)의 책(策)에 의해 평화로운 교통을 희망하고 해구(海寇)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 우대를 시도하고 이를 계기로 일어난 무역이 후에는 신흥 조선 귀족의 일상생활에 빠트릴 수 없는 수입품이 발견되어 결국 끔찍한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sup>68)</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카무라는 일본에서의 수입품이 조선 내에서 보급되는 상황이나, 용도가 확대되는 상황의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신흥 조선 귀족의 일상생활에 그것들이 어떻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 것인지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이 당시 조선에서 주로 수입해 간 것은 저포·마포·목면류였다. 다나카는 일본에서 왜 이러한 물건이 주로 수입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단지 조선에서 수입된 일본 물자가 당시 남해 물자였고, 일본 하카타 지역에서 일본 상인과 남해 상인과의 교역이 성행했으며, 이렇게 일본 상인이 가져온 남해 물자가 당시 조선에게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었다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sup>69)</sup>

이러한 다나카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 당시 조선이 왜인의 통상을 허가해 준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이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한 것이지<sup>70)</sup> 조선이 무역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혹은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왜인

65) 다나카는 소함유에 대해서는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경자조의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田中健夫(1959) p.33 주(23)), 호초와 관련된 사료는 본문에 언급하거나 주석에 달지는 않고 있다.

66) 田中健夫(1959) p.31

67) 中村榮孝(1965) p.191

68) 中村榮孝(1965) pp.192~193

69) 田中健夫(1959) p.31

70) 왜인들은 명에서 약탈한 물건을 조선에서 판매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이 이들이 왜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으며(『태종실록』 32권,

들의 물자가 조선 귀족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어서 그들과 무역을 했다는 내용은 사료 어디를 봐도 없다.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원인이 당시 일본 규슈의 내란으로 인한 것이었던 것처럼,<sup>71)</sup> 조선 초 왜구의 침구도 역시 당시 일본 규슈의 쟁란에서 비롯되었을 것<sup>72)</sup>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왜인들이 회사품으로 받아간 포(布)와 같은 종류도 결국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고,<sup>73)</sup> 쌀과 같은 식량의 경우도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기근이나 빈곤으로 인한 요청도 있었겠지만, 전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sup>74)</sup>

나카무라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나 그 실체에 관해 논할 때 일본의 정치적

태종 16년 9월 을미조, 지속적으로 조선에 파견된 일본의 사신을 우대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임오조). 아리이 토모노리(有井智徳)도 “조선에서는 평화적으로 통교하면서 명에 대해서는 왜구 활동을 행했던 자들 중에는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매매하여 무역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언뜻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조선이 왜구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명에 입구한 왜구가 사송객인 혹은 흥리왜인으로서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매매하여 무역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이해하고 있다(有井智徳(1985) 『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p.580).

- 71) 李 領(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2011년 해안에서 이 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로 번역 출판됨)
- 72) 이 영에 따르면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은 쓰시마(對馬)의 슈고(守護) 쇼니씨(少弐氏)가 규슈 본토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에는 왜구의 침구가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대폭 감소하거나 단 한 차례도 침구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이 영(2012)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동북아문화학회 pp.183-186(후에 이영(2015)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에 수록). 특히,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규슈에서는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종식된 이후, 오우치씨(大内氏)의 규슈 진출로 인해 토착 호족인 오토모씨(大友氏)·기쿠치씨(菊池氏)·쇼니씨 등과의 대립으로 인한 쟁란이 끊이지 않았다. 즉 고려 말기에는 규슈가 남북조 쟁란의 여파로 전쟁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조선 초기에는 오우치씨의 본격적인 규슈 진출로 인한 토착 호족들과의 대립 양상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2012) 『여말-선조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pp.348-354 참조
- 73) 목면(木綿)이 일본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물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永原慶二(1990) 『六 木綿の用途』 『新・木綿以前のこと：苧麻から木綿へ』 中央公論社 pp.107-127을 참조
- 74) 아라키 카즈노리(荒木和憲)도 당시 왜인(정확하게는 대마도주(對馬島主) 소 사다시게(宗貞茂)와 그의 주군인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가 조선에 식량을 수급받은 목적을 병량미 확보로 이해하고 있다(荒木和憲(2002) 『對馬島主宗貞茂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日本歴史』 653 日本歴史学会編 p.24).

상황을 논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했는데, 이것이 그의 왜구 패러다임 서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75)</sup> 그런데 다나카도 역시 위와 같이 당시 왜인의 대조통교 및 조선의 대일통교를 무조건적으로 ‘무역’,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왜구 발생의 원인이 삼도 왜구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논리와 표리일체(表裏一體)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사송객인의 실체

이번에는 다나카가 주장한 사송객인의 실체에 관해 살펴보자. 다나카는 이 사송객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왕래하여 조선의 부담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이 사송객인의 “실제 구성 요원은 왜구의 일부가 그대로 이행한 무역 상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76)</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왜구가 사송객인이라는 무역상인으로 “이행” 내지는 “전이(轉移)”했다는 것인데, 그 예로 사미도영(沙彌道英)과 사미시라(沙彌時羅)의 예를 들고 있다. 우선 다나카가 제시한 사미도영에 관한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12>

일기주 부만호(一岐州副萬戶) 사미도영(沙彌道英)에게 쌀·콩 50석을 주었다. 사미도영이 ㉔ 도적 중의 만호라고 자칭하여 우리 변경을 도둑질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지금 사람을 시켜 쌀을 주도록 고하자, 조정 신하들은 모두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sup>77)</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사료를 보면 사미도영이라는 자는 스스로 ㉔“도적 중의 만호”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실체는 왜구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위 사료만으로는 다나카가 말한 대로 그가 왜구였다가 상인으로 전이했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75) 이영(2014a) pp.200-208 참조

76) 田中健夫(1959) p.24

77)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신유조

한편 사미시라에 관한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13>

대마도(對馬島)의 종정무(宗貞茂)가 사송(使送)한 사미시라(沙彌時羅)에게 쌀 40 석(石)을 내려 주었다. ㉠ 처음에 사미시라가 중국의 절강(浙江) 등의 지방에 침구하여 진불로(陳佛奴)를 노략질하여 아내로 삼고 남자 부옥(符旭)을 종으로 삼았었다. ㉡ 정유년 9월에 진불로 등을 거느리고 경상도 부산포에 와서 정박하여 물건을 무역하고 팔았는데, 만호(萬戶) 김종선(金從善)이 잡곡 20여 석을 주고 부옥을 사고 진불로를 몰래 유인하여 도망치도록 하여 사연을 갖추어 이피니, 즉시 사역원 주부(司譯院注簿)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진불로·부옥을 거느리고 와서 요동(遼東)으로 해송(解送)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미시라가 와서 그 아내를 요구하니, 예조 좌랑 권극화(權克和)를 초헌역(招賢驛)에 보내어 맞이하여 사미시라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사대(事大)하는 나라이므로 중국 사람을 우리의 지경에 머물러 둘 수가 없다. 네가 약탈하여 온 남녀는 모두 이미 요동으로 송환하였다.”하고, 이어서 쌀을 주니, 사미시라가 기뻐하였다...(이하 생략)<sup>78)</sup>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사료는 태종 18년 2월의 사료로, 사미시라의 실체는 ㉠의 밑줄 친 내용과 같이 중국 절강(浙江) 등에 침구하여 진불로(陳佛奴) 등 중국인을 납치한 적이 있는, 확실한 왜구이다. 그런데 사미시라는 ㉡의 밑줄 친 내용처럼 이들 중국인 피로인들을 데리고 정유년, 즉 태종 17년에 부산포에 와 무역한 적이 있다. 이때 만호(萬戶) 김종선(金從善)이 이들 피로인들을 도망치도록 하였고, 태종 18년 2월에 사미시라가 다시 조선에 와서 중국인 피로인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피로인들을 이미 중국에 돌려보낸 상태였고, 대신 사미시라에게 쌀 40석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나가는 사미시라가 한때는 중국을 침구한 왜구였으나, 이후인 태종 17년에 부산포에 와 무역을 했으니 결국 해적이 사송객인으로 전이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료를 살펴본 것처럼, 사미시라가 중국을 침구한 왜구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가 이후에 부산포에 와서 무역을 하고, 또 조선에 사송객인으로 왔다고 해서 그의 실체가 무역상인으로 명확히 전이

78)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경술조



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의 왜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조선에서는 상인의 모습을, 중국에서는 왜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9)</sup> 즉 사미시라의 경우처럼 태종 18년 2월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사송객인으로 소위 ‘평화로운 통교자’ 행세를 하며 무역을 하고 있지만<sup>80)</sup> 이후 언젠가 중국 등지에 침구하여 물건과 인물을 약탈하는 왜구 행위를 자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또한 왜구 행위를 자행했음을 시인한 대마도주 소 사다시계<sup>81)</sup>의 휘하에 있던 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에도 침구한 적이 있는 자였기에 사료 하나만을 가지고 그가 왜구였다가 무역상인으로 전이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다.

## 6. 결론

일본의 전후 대외관계사 연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다나카 다케오는 14-15 세기의 왜구는 주위의 정세에 따라 ‘1.투화왜, 2.흥리왜인 내지 사송객인, 3.해적’과 같이 세 가지로 분해·변질·전환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나카의 이러한 주장은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을 계승한 것으로 이들의 주장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79) 한윤희(2021) pp.208-218 참조

80) 나카무라 히데다카는 조선에 도항해오는 해상(海商)들을 소위 ‘평화로운 통호자(通好者)’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과 중국 정부에서는 해상과 왜구를 별도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즉 왜구 침구의 피해자인 조선과 중국에서는 그들을 결코 ‘평화로운 통호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윤희(2021)의 글 참조

81) 대마도주 소 사다시계는 스스로 남번(南蕃)의 배를 노략하여 얻은 물품들을 조선에 바친 적이 있으며(『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임오조), 일찍이 고려 말에 대마도가 왜구 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정종실록』 2권, 정종 원년 7월 기사조). 이에 대한 검토로는 長節子(1987) 『第一部 第二章 十四世紀後半の二度の政變』,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pp.36-70 및 이영(2013) 『여말-선조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 167-172 등을 참조

- ① 항왜·흥리왜의 증가는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은 이들을 통제하게 되었다.
- ② 왜인들의 도항 증가의 원인은 바로 조선이 그들의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 ③ 사송객인의 실체는 왜구가 상인으로 전이된 것이다.
- ④ 조선 전기 왜구 발호의 원인은 오로지 무역적인 측면에 있었다.

본 고에서는 위의 다나카의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사료의 적합성과 서술의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그가 제시한 사료들로는 항왜의 증가로 인해 조선이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사료의 배경이 되는 조선 국내외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에 맞는 일부의 사료만을 취하거나 사료를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었다.

조선이 흥리왜인을 통제하게 된 이유 또한 다나카의 주장처럼 흥리왜선이 ‘무제한’으로 많이 와서가 아니고, 민간의 소요 및 국방상의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그들의 도박을 통제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다나카는 흥리왜선이 상시 도박할 수 있었던 원인을 조선이 그들이 가져오는 남해물자가 필요해서라고 하였지만, 해당 사료를 검토한 결과 그들의 물자가 조선에서 귀한 물건이었음은 알 수 있지만 조선 귀족의 사치 생활에 적합하여 광범위하게 수요되고 있던 양상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것이 왜인들의 도항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조선의 대일통교를 무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다나카의 주장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송객인의 실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나카는 두 왜인의 사례를 들며 그들이 해적이었다가 상인으로 전이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료를 살펴본 결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다나카의 주장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항왜·흥리왜인의 증가로 인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고 싶다. 이를 처음 거론한 연구자는 나카무라 히데다가인데 이러한 논리는 조선이 경제적으로 빈곤했다는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는 왜구 변질의 원인이 조선의 회유책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조선 전기 왜구의 발생 원인이 조선(외부적 요인)에게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사료를 자신의 주장에 맞게 취사선택하거나 과장되게 해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조선 전기 왜구 발생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왜구의 내부적 요인, 즉 일본 중앙 정부(막부)의 정치·군사적 정세와 규슈 지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부터 약 30년 이상 왜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 영(李頌)은 왜구를 연구해 온 일본 역사학자들이 사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였음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는 무시한 채 나카 무라 히데다카·다나카 다케오·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를 잇는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의 왜구론(倭寇論)은 2024년 현재도 철옹성처럼 견고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학들의 비판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한국사 통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바란다.

### <参考文献>

- 『태조실록』·『태종실록』·『세종실록』  
 김경록(2018)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146 육군군사연구소 pp. 89-97  
 민덕기(2007) 『제3장 明代 초기 일본정벌론과 조선의 대응』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pp.103-130  
 박원호(2002) 『Ⅲ 明初 朝鮮과의 女眞問題 永樂年間 明과 朝鮮간의 女眞問題』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pp.183-184  
 송중호(2022)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1396년(태조 5) 나가는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78 한일관계사학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527&cid=41826&categoryId=41826>)
- 윤기원(2022) 『中村榮孝의 『室町時代の日鮮關係』에 대한 비판적 고찰-고려말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9월
- 이수열(2019)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2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이영(2012)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31 동북아문화학회 pp.183-186
- \_\_\_\_\_(2012) 『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34 한국중세사학회 pp.348-354
- \_\_\_\_\_(2013) 『여말-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67-172
- \_\_\_\_\_(2014a)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3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00-208
- \_\_\_\_\_(2014b)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연구』127 동양사학회 pp.50-58
- \_\_\_\_\_(2014c)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40 한국중세사학회
- \_\_\_\_\_(2015)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56 역사교육학회
- 한윤희(2021)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188-193, pp.207-217
- 荒木和憲(2002) 『對馬島主宗貞茂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日本歴史』653 日本歴史学会編 p.24
- 有井智徳(1985) 『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p.580
- 李 領(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 長節子(1987) 『第一部 第二章 十四世紀後半の二度の政變』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pp.36-70
-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93) 『國史大辭典』14 吉川弘文館 p.887
- 下中弘編(1994) 『日本史大事典』6 平凡社 p.1313
- 田中健夫(1959) 『第一 倭寇の変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p.14, p.15, p.16, p.24, p.28, p.29, p.30, p.31, p.33, p.84
- \_\_\_\_\_(1962)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pp.24-29, pp.34-35

- \_\_\_\_\_ (1982)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p.52, p.54
- 中村榮孝(1934) 『室町時代の日鮮関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pp.12-13, p.19
- \_\_\_\_\_ (1960) 『田中健夫著『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大人文学研究叢書』 『史學雜誌』69-7 p.98(914)
- \_\_\_\_\_ (1965)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pp.149-150, p.164, p.165, p.175, p.191, pp.192-193, p.443, p.491, p.499, p.517
- \_\_\_\_\_ (1966) 『日本と朝鮮』 至文堂 pp.77-79, p.103, p.104
- 永原慶二(1990) 『六 木綿の用途』 『新・木綿以前のこと : 苧麻から木綿へ』 中央公論社 pp.107-127

접 수 일: 2024년 7월 11일

심사완료: 2024년 7월 26일

게재결정: 2024년 7월 27일

<Abstract>

### **The Theory of Tanaka Takeo's "The Transition of Japanese Pirates (Waegu) in the 14th and 15th Century"**

Takeo Tanaka(田中健夫) argued that the Japanese pirates of the 14th and 15th centuries transformed into "Japanese who surrendered(投化倭), Japanese traders(興利倭人), just pirates(海賊)".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the basis, order of description, and logical aspects of his argument.

Based on this review, the following four claims could not be proven:“(1) The increase in Japanese who surrendered and Japanese traders became an economic burden on Chosun, leading Chosun to control them. (2) Japanese trader crossings increased because Chosun needed their goods. (3) The true nature of the envoys(使送客人) is the transition from pirates to merchants. (4) The occurrence of Japanese pirate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as due to economic reasons.”

In particular, the logic of “increasing Japanese crossings and the economic burden on Chosun” originated from colonial historian Hidetaka Nakamura(中村榮孝).

Additionally, the argument that the cause of the outbreak of Japanese pirate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as due to Chosun (=external factors) aligns with the long-standing argument in the Japanese foreign relations academic community. This argument states that “the cause of the outbreak of Japanese pirates in the late Goryeo Dynasty was the Goryeo government’s incompetence.”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on Japanese pirates, all such claims that are tainted by a colonial view of history should be re-examined, and thi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Korean history.